

# #총파업으로 파면을 선고한다

#우리가 세상을 멈춘다 #파면은 파업으로

길을 여는 민주노총, 선봉에 선 금속노조, 그리고 우리

# #우리가\_세상을\_멈춘다



## 우리가 세상을 멈춘다

- 모두의 총파업을 향해서

계엄 이후, 평범한 일상조차 지켜주지 않는 세상을 바꿀 힘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집회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알 수 있었다. 매일 저녁 집회에 나가고, 단식에 돌입한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하수인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파면 선고마저도 미뤄졌다. 파업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대항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27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 계속되는 현재의 농락에 더이상 참지 않고, 세상을 멈추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이날 금속노조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전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고, 건설노조도 조합원 상당수가 참여했다. 노조가 없는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고, 대학생들은 자체휴강을 하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장 휴업을 하면서 연대파업이 이루어졌다. 지역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파업이 이루어졌겠지만, 이 투쟁들을 현재와 극우세력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면 투쟁은 더 큰 동력을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조합원들과 시민들 10만 명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현재는 민주주의를 배반했고, 주권자의 명령을 배신했다. 현재는 이제 기대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됐다. 우리는 더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4월 3일 광화문에서 비상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4월 10일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게는 크나큰 힘이 있다. 제조업 노동자가 생산을 멈추면 나라

가 뒤흔들릴 것이다. 공무원이 일손을 놓으면 정말로 나라가 멈춘다. 대학원생과 학교노동자들이 학교를 멈출 것이고, 화물노동자가 운송을 멈출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노동자들의 이동 자체를 멈춤으로써 세상을 멈출 것이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1차 총파업 때보다 더 많은 조합원과 시민들이 모여 위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한강진, 그리고 남태령을 다시 떠올린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었고, 연대의 힘으로 남태령의 길을 뚫었다.

물론 총파업에 대한 우려와 비난도 있다. 정치파업, 불법파업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던 시기, 모든 게 불법이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의 투쟁이 지금 우리에게 노조할 권리를 갖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엄령이 터졌을 때 국회로 달려나가, 포고령에 따르면 금지된 집회를 개최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불법파업은 지배자들이 이름 붙인 것이다. 우리가 직업도 직종도 나이도 성별도 다르면서 한데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운 국가가 정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걸 뛰어넘을 권리와 힘이 있다.

그 길에 민주노총과, 평범한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선봉에 설 수 있다고 믿는다. 평범한 조합원들과 시민들이야말로 세상을 멈춤으로써 진정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범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2차 총파업을 지지한다. 총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 세상을 멈추려할 때 같이 멈추겠다. [VF]

2차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참여할 거라면?  
SNS 총파업 해시태그로 서로에게 힘을 줘시다  
#우리가\_세상을\_멈춘다 #총파업으로\_파면을\_선고한다 #파면은\_파업으로 #나도\_파업

## 파업은 왜 중요한가?

파업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생산을 멈추는 일이다. 생산을 멈춘다면 순식간에 지배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평소에 으스스대던 사장들도 결국은 노동자의 노동 위에 기생하는 존재일 뿐이며 노동자들에게 자기 회사를 돌려달라고 하소연해야 할 처지로 전락한다. 그러다보니 지배자들은 파업을 한편으로 두려워하며 가슴 깊이 경멸한다.

노동자의 생산 없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 2022년 화물연대는 2주 동안의 파업만으로도 정부-사용자 추산 4조 원의 타격을 안겨줬다. 2023년 현대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기미가 보이자, 언론들은 실제 파업을 하면 연 1조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몸서리쳤다.

강력한 파업은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항의해 벌어진 총파업에는 무려 37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전국을 멈춰 세웠다. 김영삼 정부는 한 발 물러서 개악안 내용을 조정해야했고, 결국 1997년 말 재집권에 실패, 김대중 정부가 당선하고 노동계급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탄생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다시 윤석열이 군림하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극우들이 '계몽령'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전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점에 있다. 다만 지금 운동의 상황은 극우와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돌파구를 좀처럼 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계몽파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F]



파업의 효능과 우리의 채널과 우리의 트위터

